

# 고신 신학의 역사적 조명

김 의 환

(총신대학교 총장, 역사신학)

고신 교단의 발전은 참으로 특기할 만하다. 이제 반 세기의 역사에 이르게 된 고신의 과거를 조명하고 반성하는 일은 의미가 큰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고신이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들을 살펴보면, 현재 고신의 위치와 나아가서는 보수신학을 견지하는 고신 신학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여야 할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 I. 평양신학교의 신학적 전통

### 1. 평양 신학교의 보수 신학적 입장

고려 신학교는 처음부터 평양 신학교의 신학적 전통을 표방하며 개혁주의적 보수 신학을 기초로 하여 출발하였다. 고신 신학의 역사는 1901년 평양에 설립된 평양 신학교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 신학교는 창립 초기부터 보수주의 신학으로 출발하였다.<sup>1)</sup> 1918년부터는 신학교의 장로교회 정통성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그 해로부터 장로교 총회는 한국 장로교회의 지도없이 타 신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장로교회에서 사역(使役)하려는 자는 먼저 치리기관인 노회의 인도와 관리를

1) 김양선, 「韓國基督教解放十年史」(서울:총회교육부, 1956), pp. 229-31.

받고, 장로회 신학교에서 신경(信經)과 정치(政治)를 강습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게 하였다.

1922년 총회가 장로회 헌법을 제정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기초한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경」을 재확인한 사실들과 함께, 이러한 신학교육의 강화와 보수적 신학을 가진 평양 신학교의 정통성 확립은 한국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보수주의 신학을 장로교회의 지도원리로 채택함으로써, 구미나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자유주의 및 근대주의적 신학을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안전 장치 속에서 보수 신학 일변도로 평양 신학교는 한국 장로교의 유일한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튼튼히 성장하여 갈 수 있었다.

## 2. 신사참배 문제

그러나 그 성장은 오래가지 못했다. 평양 신학교가 바로 보수 신학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와 한국교회는 일제의 종교정책과 충돌을 하게 되었다. 일제는 그들이 섬기는 신사(神社)에 전 국민을 참배하게 함으로 국민적 충성을 시험했고, 군국주의의 정신적 단결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1920년대만 해도, 신사(神社)와 종교는 관념상 다른 것이고, 따라서 “신사에 참배시키는 것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의 신교(信敎)의 자유(自由)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sup>2)</sup> 라는 입장이 서 있었으며, 기독교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인 신사 참배 강요의 마수가 뻗친 것은 1935년 평양의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정기적인 참배를 강요할 때부터이다. 신사 참배를 강요하여, 신앙의 자유와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것이다.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응은 처음에는 교파 따라 그 반응이 달랐다. 감리교의 대부분은 정치적인 국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본의 말

2) 高橋濱吉, 「朝鮮教育史考」(京城: 帝國地方行政學會, 1927), p. 507.

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계통의 학교들은 폐쇄되지 않고 해방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교회의 수난도 비교적 가볍게 스쳐갈 수 있었다. 감리교의 이러한 입장은 1938년 감리교 총회록의 기록에서 잘 나타난다.

基督敎會로서는 政治問題에 直接으로 正當하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基督敎會의 信者인 동시에 國家의 臣民인 것을 망각해서는 아니됩니다. 지금은 內鮮一體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敎會의 有力한 牧師들과 平信徒들이 서명 날인하여 우리 敎會에서 그 일을 實行코자 합니다.<sup>3)</sup>

감리교의 이러한 입장에 반해서 장로교는 처음에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전국적인 반대 분위기 속에서 1931년 9월 경남 노회는 신사 참배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장로교 선교사들은 선교 실행위원회를 1936년 초에 소집하여 신사 참배 반대의 뜻으로 기독교 학교의 폐쇄를 불사하기로 결의하였다. 드디어 그해 10월 실행위원회에서는 1938년까지 평양 내외의 학교 폐쇄 단행을 결정하고야 말았다.<sup>4)</sup> 평양 신학교는 이러한 와중에서 1938년 9월 20일 개강 예정이었으나, 선교사들의 결의에 따라 무기한 연기된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평양 신학교도 폐쇄되고 말았다.

일제는 이러한 장로 교회의 반발을 그냥 두지 않았다. 일제는 장로회 제 27차 총회에서 신사 참배가 가결되도록 신사 참배를 결사 반대하는 강경파들은 미리 검속하고 친일 목사들을 통해서 분리 공세를 띤 다음, 총대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협박으로 신사 참배 가결을 촉구했다.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1938년 9월 10일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경관 97명이 193명의 총대 사이 사이에 끼어 앉아 회의 진행을 감시하였다.

3) 「基督敎朝鮮監理會 第3回 總會錄」(1938), p. 68.

4) 閔庚培, 「韓國基督敎會史」(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0), p. 429.

조선예수교장로회 제 27차 총회에서 신사 참배가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결의했다.<sup>5)</sup>

이와같이 장로회 총회가 강요에 못이겨 신사 참배를 가결한 이후 주기철, 손양원 목사 등을 비롯한 적지 않은 수의 목사들이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여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당시 경남 마산 문창교회의 목사였던 한상동(韓尙東) 목사도 자신의 교회 내에서부터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일으켰고 참배 결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하며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경남노회에서 신사 참배안을 부결시키는데 성공하였다.<sup>6)</sup>

그러나 일제는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신사 참배 반대 운동으로 2백 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2천 여 신도가 투옥되었으며 50 여 명의 교직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 이처럼 경남에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으로 교회적 피해가 많았다는 사실은 후일 고신이 경남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 II. 조선 신학교의 등장

평양 신학교가 신사 참배 반대로 폐쇄된 후 신학 교육의 공백 기간이 계속되는 동안 한신대학의 전신인 조선 신학교는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종래의 정통주의적, 근본주의적 평양 신학교의 신학을 반대하는 입장

5) Ibid., pp. 430-31.

....., 「朝鮮예수교長老會, 第二十七回會錄」(1938), p. 9

제27차 총회록에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가 담겨 있다.

### 聲明書

我等은 神社는 宗教가 아니오 基督教의 敎理에 違反하지 않는 본의를 理解하고 神社參拜가 愛國的 國家儀式임을 自覺하며 또 이에 神社參拜를 率先 勵行하고 追히 國民精神總動員에 參加하여 非常時局下에서 銃後 皇國臣民으로서 赤誠을 다하기로 期함  
右聲明함.

昭和 十三年 九月 十日

朝鮮예수교長老會總會長 洪澤麒

6) 閔庚培, 「基督教大百科事典」, vol.10(서울: 기독교문사, 1990), p. 186.

을 취하여 출발하였다.<sup>7)</sup>

조선 신학교는 “학문의 자유”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전통적인 입장보다는 “현대”를 강조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조선 신학교는 평양 신학교의 교육 이념과 전통을 전적으로 개혁할 것과 보수주의 신학 사상과 대결 할 것을 공공연히 발표함으로써 평양 신학교의 보수적 전통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하였다. 반면에 보수주의 신학을 고수하며 신사 참배를 반대한 평양 신학교는 폐교되는 교회사적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1918년 창간되어 22년간 한국교회의 신학을 주도해 오던 「신학지남」이 1940년 8월호를 끝으로 폐간됨으로 보수주의 신학의 연구와 변증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 신학교는 신사 참배가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는 친일적 입장을 받아들이므로 시대에 걸맞는 신학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1938년 총회의 신사 참배 결의를 반대하고 투쟁하던 많은 보수적인 선교사들도 1940년까지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보수주의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투옥되거나(주기철, 한상동 목사, 손양원 전도사 등) 망명의 길을 떠났다. 남아있는 지도자들 가운데는 강단에 설 수 없도록 함구령을 받은 분들도 있어서 보수주의 목소리가 밖으로 들리기 어려웠던 1940년 4월에 조선 신학교는 새로운 소리를 내며 태어났다.<sup>8)</sup>

기독교 장로회에서 쓴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서는 조선 신학교를 세

7)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편찬위원회, 「한국 기독교 100년사」(서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출판사, 1992), p. 322

- ① 우리는 단지 복음의 선포에서만이 아니라 신학적, 지적 수준에서도 세계 교회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목사를 양성하려고 한다.
  - ②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가장 복음적인 신앙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자유한 신학적 연구를 보장한다.
  - ③ 우리는 현대의 빛에서 켈빈의 신학을 강조하되 교수의 권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자유한 이해를 통하여야 한다.
  - ④ 우리는 성서연구에 비판적 방법을 받되 신학의 수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성서의 참된 이해를 위한 예비적인 지식으로서 받는다.
- 8) 남영환, 「한국 기독교 교단사」, (서울: 영문, 1995), pp. 214-15.

운 것이 “평양 신학교가 폐교되고 선교사들이 귀국하게 되자 오랫동안 선교부의 선교 정책과 근본주의 신학 교육에 불만을 가지고 주목해 오던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숙원이었던 신학 교육의 이념을 살려보고 또 교회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교역자 공급을 위해 1939년 서울에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sup>9)</sup>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선교사들에 대한 불만으로 새로운 신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그들이 주장하게 된 원인은 선교사들의 보수 신학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국인 교역자 양성에 대한 선교회의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구체적인 실천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남장로회의 레이놀즈(W. R. Reynolds, 李誦瑞)가 제시한 교역자 양성 원칙 제3항은 그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선교 사업 초기 단계엔 미국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지 말 것. 그가 함께 살고 일해야 할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우려가 있는 훈련은 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들과 본토인들 사이에 사고(思考)와 생활의 간격이 생기므로 인해 종종 선교사들은 곤혹해 한다. 아직 간격이 생기지 않은 곳에서는 간격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바로 이 대목이 많이 비판을 받은 대목인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한국인 교역자의 교육 수준을 일반인들의 수준 정도로 규정함으로 교역자의 자질 향상을 제도적으로 규제한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sup>10)</sup> 그리고 서울에 조선 신학교를 세운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해방 전 기독교의 중심이 평양 신학교가 자리잡은 평양이어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던 상황이 남한 교회의 계속적인 수용을 어렵게 하였다는 것이다.

9)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편찬위원회, p. 322.

10) 한국기독교사상연구회, 「한국 기독교의 역사 1」 (서울: 기독교문사, 1990), pp. 223-24.

조선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여 처음에는 큰 어려운 일이 없이 발전하였다. 해방 후 1946년 남부 총회에서 직영 신학교로 인가받고 1947년에는 미 군정 당국으로부터 대학 인가를 받았다. 학문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성경의 역사적 비판과 세계 신학에의 참여를 호소하며 자리를 잡아갔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 방법론은 한국 교회에 충격과 반발을 일으켰다. 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던 51명의 학생들은 1947년 제33회 총회 시에 김재준, 송창근, 정대위 교수 등의 자유주의적 강의에 반기를 들고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일로 이들은 조선 신학교를 편입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고려 신학교가 조선 신학교에 대항하는 신학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11)</sup> 고려 신학교가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정통 신학 보수의 대안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 Ⅲ. J. G. Machen의 신학

이 시점에서 해방 후 구체적인 고려 신학교의 탄생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그 근원이 되는 신학적 배경을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고려 신학교의 보수 신학은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평양 신학교의 전통을 이어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평양 신학교의 보수적 전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그것은 미국 구 프린스턴의 핫지(Hodge) 부자(父子), 워필드(Warfield)로 내려오는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 프린스턴의 정통 신학을 이끌어 갔던 메이첸의 개혁주의 신학은 평양 신학의 원류와 상통한 것이다.

1920년대 프린스턴에서부터 따로 분리하여 보수 신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개교할 때까지 일어난 보수 대 자유의 치열한 대결 양상은 조선 신학교의 설립 이후 한국 교회의 상황과 흡사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대하여 사본적 연구만이 아니라 그 사상

11) 이영현, 「한국 기독교사」(서울: 컨콜디아사, 1980), p. 242.

내용까지 평가하고 비판하는 이른바 고등 비평학이 유럽에서는 18세기 말엽과 19세기 전반기에 이미 성행하였지만, 그것이 미국 교회에 알려진 것은 뒤늦은 1870년 경이었다. 그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브릭스(Briggs)사건”이 발생하였다. 북장로교회 산하에 있었던 뉴욕시 소재 유니온 신학교의 브릭스(Charles A. Briggs) 교수가 성경의 고등비평을 수락한다는 발언을 함으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수계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대 단합을 통하여 반발하였다. 이것이 바로 “근본주의 운동”(the Fundamentalist Movement)의 시작이요 발단이였다.<sup>12)</sup>

그 후 1895년 나이아가라 집회에서는 다섯 가지 근본적 교리들을 선정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성경의 무오성(無謬性),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셋째,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넷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다섯째,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이었다.

이런 와중에서 1929년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는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퇴진하는 일이 있었다. 신학교장 로스 스티븐슨(J. Ross Stevenson)의 신학적 리더십이 약함으로 자유주의 사조가 학교 내에 들어와 세력을 얻게 되자 이것에 대해 항의하여 메이첸, 알리스(Allis), 윌슨(Wilson), 반 틸(Van Til) 등의 교수진들이 사표를 던지고 나와서 메이첸(J. Gresham Machen)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시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

메이첸은 당시 다른 근본주의 지도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근본주의 운동 전체에 신학적 사상성과 원대한 비전을 준 뛰어난 지도자였다. 그는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의 수호와 정통적 개혁주의 신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그 생애를 바친 신학자이며 교회 지도자였다.<sup>13)</sup> 그러기에 박형룡 박사가 비록 자신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였으면서 후배인 박윤선 목사를 미국 유학에 추천할 때, 프린스턴 보다 메이첸이 지도하는 웨스트민스터를 택하여 연구하도록 한 것은 우연한 결정이 아니요, 나아가 훗날 고려 신학

12) 박아론, 「보수 신학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 총신대출판부, 1990), pp. 15-17.

13) Ibid., pp. 18-25.



교의 신학 형성에 심오한 결과를 초래케 한 사실임을 간과할 수 없다.

#### IV. 고려신학교의 탄생

1929년 프린스턴의 자유주의화에 반기를 들어 웨스트민스터가 탄생한 것과 대조적으로 해방 후 한국 상황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신사 참배 문제, 자유주의 신학을 그 바탕으로 하는 조선 신학교가 평양 신학교의 보수 신학에 반발하여 출발한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신학교의 대안으로 평양 신학교의 신학 전통을 이은 새로운 보수 신학교의 탄생이 불가피했다.

신사 참배 반대 운동으로 옥고 중(獄苦中)이던 주남선(朱南善) 목사와 한상동(韓尙東) 목사는 일본이 패망할 것을 확신하고 한국 교회의 재건 방안을 구상하였다. 평양 감옥에서의 이들의 구상이 바로 고려 신학교의 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구상은 출옥 후 수양원을 건설하여 일제 하에서 시달린 교역자들의 영성 훈련을 통하여 새 출발을 하도록 할 것과 신학교를 설립하여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교역자를 양성하는 것이 있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던 옥중에서도 건전한 신학의 재건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정화와 재건을 도모하려 하였던 것이다.<sup>14)</sup>

막상 1945년 해방이 되자 한국 교회는 재건 방안을 중시하여 여러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경남 노회의 분쟁이었다. 경남노회는 주남선, 한상동 목사의 영향력이 컸던 만큼 교회 재건에 있어서 출옥 성도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남 노회에는 일제시 경남 교구장을 한 김길창(金吉昌) 목사의 영향력도 대단하여 교회 재건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교회 정치적 배경 속에서 고려 신학교 모체인 하기 신학 강좌가 태동하게 된 것이다. 1946년 5월 모친의 부고를 받고 시무하던 산정현교회

14) 한상동, 「주님의 사랑」 (부산: 성문사, 1954), p. 45-46.

를 뒤로한 채 월남한 한상동 목사는 이복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부산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는 옥중에서의 꿈을 실현키 위해 서울로 올라가 만주에서 귀국한 박윤선 목사를 만나 신학교를 세우기로 약속 받았다. 그리고 출옥 동지이며 선배인 주남선 목사를 거창으로 찾아가서 협력 동의를 얻었다. 한 목사는 다음으로 신학교를 시작할 교사 문제로 고민하던 중, 진해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강주선(姜柱善) 목사의 양해 아래 그곳을 임시 교사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1946년 5월 20일 한상동, 주남선, 박윤선, 손양원 등 여러 목사가 진해에 모여 신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고, 6월 23일 6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박윤선 박사 인도로 3개월 간의 제1회 하기 신학강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sup>15)</sup> 이렇게 시작한 3개월 간의 ‘하기신학강좌’는 고려 신학교의 요람이 된 것이다.

## V. 박형룡과 박윤선

고려 신학교는 평양 신학교의 정통성을 잇는 보수주의 신학교라는 명분을 위해서, 평양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쳤던 박형룡 박사가 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 필요했다. 당시 박형룡 박사는 만주의 동북신학교에서 교수하면서 봉천에 머물고 있었다. 귀국이 많이 지체됨으로 박윤선 목사를 교장서리로 하여 1946년 9월 20일에 일단 고려신학교를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송상석 목사가 만주의 봉천으로 두 차례나 다녀온 끝에 1947년 9월 20일 박형룡 박사는 온 가족과 함께 무사히 귀국하였다. 그 해 10월 14일에 박형룡 박사 교장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는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공부한 분으로, 길선주 목사의 신앙적 감화를 받고, 특히 미국에서는 메이첸 박사 밑에서 신학적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이미 한국 초기 보수 신학의 상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박윤선, 한부선 교수와 함께 취임식을 가지는 자리에서 “사도적 신학

15) 김요나, 「총신 90년사」, (서울 : 양문, 1991), p. 314.

소론”이라는 제목의 취임 강연을 통해 정통 신학 확립을 역설했다.<sup>16)</sup>

박형룡 박사는 교장의 직을 수락하기 전에 한상동 목사와 더불어 신학교는 전국 교회를 배경으로 한다는 조건에 합의를 보았던 것이다. 한상동 목사나 박형룡 박사 모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통적인 신학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전략과 현실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지닌 채 출발했다.

고려 신학교는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과 교회 재건의 이상을 가진 몇 개인의 소명의식에서 시작된 것이었고, 장로교 전체의 직접적인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히 총회의 치리와 교권 밖에 있었다. 어쩌면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의 철학을 따르자는 결단이 작용했을 지도 모른다. 신학교를 총회와 교권 밖에 둬서 정통 신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의도가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려 신학교가 총회의 인정 밖에 있었다는 사실은 한상동 목사와 박형룡 박사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처음부터 생기게 되었다. 한상동 박사는 전국 교회적인 지원과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다. 아직 장로교회 안에 자유주의자들이 교권을 행사하는 동안 독립 신학교로서 성장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박형룡 박사는 한상동 목사와의 시각 차이가 조선 신학교에서 편입한 학생들의 집요한 설득, 전국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대세주의, 선교부에 대한 집착 등으로 결국은 고신에서 길게 머무를 수가 없었다.

정리해 보자면 박형룡 박사는 고려 신학교를 한국 교회를 배경으로 총회 직영의 총회 신학교로 승격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한상동 박사는 그 목표 달성의 시기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 했었다. 박형룡 박사는 전국 교회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총회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로 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상동 박사는 평양 신학교의 예를 들면서 고려 신학교의 서울 이전을 반대하였다.

16) 남영환, pp. 302-3

또 박형룡 박사는 한부선 등 메이첸파 선교사 이외에도 주한 4장로교 선교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합작을 희망했지만, 한상동 목사는 자유주의적인 선교부의 원조를 거절했고, 특히 미국 북 장로교와 캐나다 연합교회 선교부와의 유대를 거절했다. 두 분의 견해를 좁히지 못한채, 결국 박형룡 박사는 1948년 4월 고려 신학교 교장직을 사임하고 서울로 올라가고 말았다.<sup>17)</sup>

박형룡 박사는 부산을 떠나 서울로 갔고 거기서 새로운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조선 신학교에서 박형룡 박사를 따라 편입해 온 대부분의 학생이 그를 따라 서울로 가버린 것이다.<sup>18)</sup> 이러한 사건의 추이는 결국 고신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박형룡 박사와 고려 신학교가 결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자유주의적인 교권주의자들이 다시 교권 쟁탈전을 벌이게 하였고, 장로교 보수 세력간에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sup>19)</sup>

박형룡 박사가 고려 신학교를 떠난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신학교는 곧 정상화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고려 신학교는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박윤선 박사를 강사로 특별집회를 개최하였다.

박윤선 박사는 1948년 5월 제2 대 교장에 취임하게 되었다. 그는 교장으로서는 뿐 아니라 교수로서 고려 신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메이첸(G. J. Machen)과 반틸(C. Van Til)등에게 배우고 화란 자유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동안 개혁주의 신학을 연구하였다. 워필드(B. B. Warfield), 카이퍼(A. Kuyper), 바빙크(H. Bavinck), 스킬더(K. Schilder), 그레이다누스(G. Greydnus) 등의 신학을 소개하고 가르침으로 고려 신학교에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가 가르치는 과목은 주경, 변증학, 조직신학 그리고 성경 언어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신학 분야를 망라한 것이었다. 그 보다는 그의 감화력은 매

17) Ibid., pp. 307-309

18) 김양선, 「한국 기독교사 연구」(서울: 기독교문사, 1973), pp. 153~155

19) 남영환, p.307

일 같이 외친 채플 시간에 더욱 나타났다.

어떤 의미로 볼 때 한상동 목사의 의지를 신학화하고 고신의 영성과 학문을 함께 발전시켰던 학자가 바로 박윤선 교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시 고려 신학교의 신학이란, 박윤선 교장의 신학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그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sup>20)</sup>

박윤선 목사를 이야기할 할 때, 또한 그의 성경 주석 작업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한국 교회는 칼빈주의적인 성경 이해와 주석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1939년 4월 *The Presbyterian Guardian*지에서 그 사실을 피력했다.

한국교회는 이제 보다 높은 단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단계로 도약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은 칼빈주의를 통해서 가능하며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과거에는 그랬듯이, 칼빈주의는 성경의 진리만큼 참으며 인간의 심령 심령에 체계있게 전달해 줄 것이다.

박윤선 교장은 옛 평양 신학교의 벽을 넘어선 개혁주의 신학자였다. 그는 단순한 근본주의의 차원을 넘어서서 폭 넓은 개혁주의적 안목에서 신학을 가르쳤다.<sup>21)</sup>

그는 1952~1962년까지 8권의 주석을 출간했는데, 전부 신약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신약 주석들은 사실상 우리 말로 된 학문서가 거의 없던 시기에 쓰여지기 시작했으므로 그는 단순히 문법적이고 언어학적인 (*grammatico linguistic*) 주석들 보다는 그 이상의 주석이 되도록 꾸몄다.<sup>22)</sup> 박윤선 박사의 주석 작업은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작업으로

20) Ibid., pp. 331-332

21) 이러한 넓은 안목에 관한 박윤선 목사의 견해는 1951년에 창간된 고려 신학교 월간지 「파수군」에 실린 그의 초기 작품들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1952년 4월에 실리기 시작한 여러 편의 칼빈주의 시리즈를 주목해 보라

22) 간하배, 「한국 장로교 신학사상」(서울: 실로암, 1988), pp. 138~139

한때는 한국 교회 주일 설교가 거의 모두 그의 주석을 참고하여 나온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그의 주석 작업은 1962년 『고린도전·후서 주석』이 나오므로 신약은 완간을 보게 되었고, 그 후 구약 성경 주석에 주력하여 1979년 30년 간에 걸쳐 이룩한 신구약 주석은 끝을 맺게 되었다. 박윤선 주석을 집필할 때 영어권은 물론 독일과 화란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보수와 진보 양측의 학자들의 저서를 가능한 한 충분히 참고도 하고 인용도 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신학적 공헌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그는 칼빈주의적 정통 신학의 입장에서 독일의 바르트와 브루너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소개하였고 미국의 구 프린스턴, 화란의 신학자들을 소개함으로써 보수 신학의 시야를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후학을 위한 계몽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sup>23)</sup>

1948년 봄부터 1950년 6월까지 박형룡 박사와 김재준 교수의 신학적 대결이 이루어질 때, 박윤선 박사는 박형룡 박사 편에 서서 1950년 4월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의 글을 써 김재준 교수의 성경관을 비판했다.

당시 한국교회는 6·25사변 직전까지 김재준 교수의 성경관을 비판했다. 당시 한국 교회는 노회와 총회에서 싸우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박윤선 박사는 신학자로서 한국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득이 김재준 교수의 성경관을 비판하는 글을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자가 나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사변이 발발함으로써 양인 사이에 신학적 논의가 계속될 수는 없었다.<sup>24)</sup>

6·25사변 이후 한국 장로교회는 쓰라린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는데, 1951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고신 측을 단절하게 되고,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현 한신측인 조선 신학교 측을 단절하게 된다.

23) 홍치모 외,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서울: 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pp. 294~297

24) 김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 pp. 229~31

## VI. 고신의 위기와 시련

### 1. 예배당 명도 문제와 박윤선 교장의 퇴진

고신 교단에는 또 한가지의 시련이 부딪치게 된다. 1951년 5월 부산 중앙교회당에서 모인 총회에서 고려 신학교와 관계하는 경남 노회를 추방하면서 아직 고신 교단이 형성되기도 전에 고려 신학교와 관계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명도하라고 지시했다. 그 이유는 경남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유지 재단에 편입되어 있으니 경남 노회와 무관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당시 유지 재단 이사장은 김길창 목사였다.

이리하여 첫번째로 부산에 있는 초량, 영도, 마산에 있는 문창 그리고 진주, 거창 등의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 큰 교회 다섯 곳을 골라서 명도를 지시했다.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는 순순히 교회당을 내주었으나 영도나 문창, 진주, 거창(거창은 내어주기로 결정 했음)등의 교회들은 사정이 달랐다.

이 예배당 문제는 결국 소송 문제로 번졌고, 고신 교단에서는 신학적 문제로 비화되었다. 예배당 명도 문제에 관한 오랜 논란과 시비 끝에 총회에서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처리함이 옳다”고 결의했다.

고신측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한상동 목사의 입장은 예배당은 하나의 재산이며, 예배당 자체가 절대적으로 신성시되는 성전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든, 한 영혼에게라도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송상석 목사의 입장은 예배당은 성도들이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물질과 땀과 정성으로 지은 것이요, 법치 국가에서 자기 재산을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박윤선 박사는 재산 문제로 신자(특히 목사)끼리 법정에서 불신

자들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동시에 현실이 부덕됨을 보는 바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윤선 목사는 결코 이 문제를 성경에 위반되거나 신학적인 문제로 다루지는 않았다.<sup>25)</sup>

그런데 이러한 입장으로 이 예배당 명도 문제가 소송 문제로 비화되고 또 안식일 성수 문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의 차이로 결국, 박윤선 목사가 고려 신학교를 떠나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 예배당을 내어 줄 수 없다는 사람들은 박윤선 목사의 신학교 교장직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이 문제로 인한 복잡한 기류는 박윤선 목사와 한상동 목사와의 사이에 금가게 한 것이다. 당시로서 박윤선 없는 고려 신학교도, 한상동 없는 고려신학교도 생각할 수 없었으며, 이 두 사람이 갈라져서는 안된다고 모두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만 것이다.<sup>26)</sup>

## 2. 승동 측과의 합동과 환원 파동

1959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W.C.C. 문제 등으로 승동 측과 연동 측이 다시 분열되자 신학과 신앙 노선이 같은 승동 측과 고신 측은 합동을 추진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가졌다. 승동측은 1960년 봄 노회가 10년전 헤어진 고신 형제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열렸다. 순천노회를 필두로 전남노회와 경북노회가 각기 고신측과 합동하자는 헌의를 그 해 가을 총회에다 올렸다. 총회는 고신 측과의 합동을 결의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 보수 신앙 노선에 서있는 비 W.C.C. 계 선교사를 초청하는 문제까지 의결시키고 위원을 선정하였다.<sup>27)</sup>

또한 고신 측에서도 1960년 9월 20일로부터 23일까지 부산 남교회당에 모인 제 10회 총회는 승동측과의 합동을 추진키로 결의하여 합동 추진 위원 9명을 선정하였고, 이들로 하여금 합동 추진을 위한 연구가 승동 측과의 교섭을 일임하고 총회를 정회하였다.

25) 남영환, pp. 380~85

26) Ibid., pp. 399~400

27) 김요나, p. 391



1960년 10월 25일 부터 26일에 대전 중앙 교회에서 승동 측 합동 추진 위원회 양화석 위원장 외 9인과 고신 측 합동 추진 위원회 황철도 위원장 외 8인이 회합을 가져 합동안을 결의하였다.<sup>28)</sup>

그 후 1960년 12월 13일 승동 교회당에서 합동 총회가 모이게 되었고, 신학교 단일화 안을 비롯한 합동 원칙을 만장 일치로 가결하였다. 이러한 신학교 단일화 계획에 따라 1961년 12월 28일 고려 신학교는 서울 장로회 총회 신학교와 병합되어 장로회 총회 신학교 부산 분교로 남게 되었고 끝내는 고신의 총신 부산 분교화가 환원 문제의 발단이 됐다.

1961년 9월 21일 부산 남교회당에 모인 제46회 합동 총회는 한상동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하였으나, 당시 이 신학교 문제는 합동 측과 고신 측과의 갈등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승동 측과 고신 측의 합동 당시 “신학교는 총회 직영으로 일원화 하며...”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였다. 고신 측은 이 원칙을 승동 측의 총회 신학교와 고려 신학교 양자의 행정적인 연계성을 가진 일원화된 신학교 체제로 이해하였지만, 승동 측은 고려 신학교의 폐쇄를 전제로 한 일원화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후 고려 신학교 졸업생들 5명에 대한 강도사 고시 자격 불허로 고신 측 환원운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되었고, 1963년 9월 17~20일까지 부산 남교회당에서 대한 예수 장로회(고신) 제13회 환원 총회를 조직하여 열었다. 한편 합동 측은 1963년 9월19일 제48회 총회를 열고 이수현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함으로 고신 측과 승동측이 완전히 분리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환원에 반대하여 승동 측에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승동 측과 합동, 다시 환원하는 과정에서 고신 측은 약 1/3의 교세를 잃게 되었을 뿐더러, 두교단이 합동했다가 재분리 함으로써 남긴 한국 교계에 환원 파동이 미친 충격은 컸다.<sup>29)</sup>

28) 남영환. p. 496

29) Ibid., pp. 504~15

## VII. 결론

지금까지 고려 신학교가 걸어온 반세기의 발자취를 살펴 보았다. 이제 고신의 과거를 조명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고신은 다음 같은 중요한 교회사적 공헌을 한국 교회에 남겼다.

첫째 보수 신학의 보루적 사명을 감당했다. 고신 외에 총신이 함께 한국 교회의 보수 신학의 쌍벽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나 해방 후 조선 신학교가 재빨리 남부 총회의 인준을 받아 한국 교회의 대표적 신학교로서 독보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조선 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위태로운 순간에 평양 신학교의 신학적 전통을 이어서 해방 직후 신속하게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파수하며 신학 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초대 교장 박형룡 박사의 상경과 함께 장로회 신학교를 거쳐 총회 신학교가 따로 생기게 되는 신학교의 병립 현상이 생기게 되었으나 총신이 생기기에 훨씬 앞서 고신은 밀려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범람을 막는 일에 방과제적인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둘째로 개혁주의 신학의 산실(産室)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평양 신학은 비록 보수주의 신학으로 출발했으나 근본주의 신학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고신은 비록 평양 신학교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면서도 미국 교회 일변도의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권을 넘어서 화란 개혁주의 신학을 일찌기 접목하여 한국교회에 폭넓은 개혁주의 신학을 보급하는데 일조하였다. 박운선 박사의 주석에서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영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현재로는 오직 고신 대학교 만이 보수 신학적 대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간호대학, 의과 대학을 세우고 영남 제일의 종합 병원을 경영하는 일도 개혁주의 신학의 소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째로 많은 보수주의적인 신학자들을 배출하였다. 고신은 초창기부터 홍반식, 오병세, 이근삼, 홍창표 등 많은 졸업생들을 신학 노선이 같은 미국과 화란의 신학교에 유학을 보냈다. 그러나 50년대 장신, 60년대 총신은 사정이 달랐다. 59년 장로교 분열 후 총신은 긴급히 필요로 하는 한국인

교수 요원의 심각한 부족 현상에 직면하였다. 그 이유는 고신을 작별하고 서울로 떠난 박형룡 박사가 신학은 보수 신학을 따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염된 미국 선교부와 제휴함으로써 말미암아 장신이나 총신 졸업생을 보수적인 해외 신학교에 유학보내지 못한 결과에서 설명된다. 유학생은 보냈지만 막상 총신이 필요로한 신학자는 배출하지 못했다.

1960년 초에 2년 간 이루어진 총신과 고신과의 합동은 합동 측 교단에 단순한 수적 증가 뿐만 아니라 고신 출신 신학자들의 총신 합류를 통한 총신의 교수진 강화라는 점에서도 고신이 개혁주의 운동에 신학적인 기여를 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내재로, 회개와 순교적 신앙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교회에 교회 갱신적 활력제 역할을 했다. 해방 후 남부 총회가 일제 하 신사 참배의 죄를 총회적으로 분명하게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지연할 때 고신은 결국 추방되는 수모를 간수하며 회개와 교회 갱신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한국 교회 앞에 청교도적 개혁주의 교회상을 보여주며 이단과의 대결에 있어도 교회적 순결을 강조하여 한국 교회에서 향도적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범람하는 세속주의에 맞서 생활의 순결을 강조함으로써 때로는 율법주의적이란 오해가 따를 만큼 한국 교회의 순화에 앞장을 서왔다. 외롭지만 순결을 지키기에 지난 50년 간 힘써 온 고신의 모습은 한국 교회사에 핀 한송이 백합화에 비길만 하다.

적어도 60년대 초엽까지의 고신의 모습은 한국 교회 앞에 신학적으로 교회 갱신 차원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지상에 어디에 완전한 교회가 있던 말인가? 끝으로 보다 더 건설한 미래의 고신 발전을 위해서 충언적인 결어를 보탬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교회사의 교훈은 항상 교회는 연합과 순결 사이의 긴장 속에 지나친 강조에 따라서 쉽게 한편으로 치우쳐 교회사적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Novatian파의 치우침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순결을 내세운 지나친 우월감과 교만은 항상 잘 믿어 보려는 자의 편에 쉽게 도사리기 마련이다. 그 결과는 교회사의 겨우 변두리에 남는 비극을 초래하고 만다. 고신



은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룰지언정 지류에 맴돌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고신은 과거 한국 교회에 보여준 기여를 넘어서, 앞으로 총신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21세기의 세계 교회를 향하여 신학적이며 선교적인 공헌을 하여 주었으면 한다. 순결과 연합을 함께 추구하면서, 그리고 회개와 겸손을 함께 실천하면서.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